

방산고 1학년 영어 실전 모의평가 8회

2026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· 정답 및 해설

1 ③ 2.5	2 ① 2.7	3 ⑤ 2.5	4 ② 2.6	5 ④ 2.8	6 ② 3.0
7 ⑤ 2.7	8 ③ 2.5	9 ① 3.1	10 ④ 2.7	11 ⑤ 3.0	12 ② 3.2
13 ④ 2.5	14 ① 2.7	15 ③ 3.1	16 ④ 3.0	17 ① 2.9	18 ⑤ 2.7
19 ③ 2.8	20 ② 3.1	21 ① 2.8	22 ④ 2.6	23 ② 2.6	24 ⑤ 2.5
25 ③ 2.7	26 ⑤ 2.5	27 ① 2.4	28 ④ 2.7	29 ② 2.4	30 ③ 3.1
31 ④ 2.8	32 ⑤ 2.7	33 ② 2.6	34 ① 3.1	35 ④ 3.1	36 ③ 3.3

구성 검수

선택형 36문항 · 총점 100점 · 서답형 없음

문법·어법형 8문항 포함: 2, 6, 10, 12, 14, 18, 27, 30번

정답 위치 분포: ① 7문항 · ② 7문항 · ③ 7문항 · ④ 8문항 · ⑤ 7문항

같은 정답 위치 연속 반복: 없음

문법 문항은 실제 학교형식에 맞춰 밑줄 어법 판별과 (A)-(C) 형태의 어형·태·수일치·분사·전치사 구조를 포함했습니다.

1. ③ [2.5점]

원문은 약한 치아를 가진 늙은 코끼리에게 사탕수수 대신 바나나를 준 비했다고 한다.

2. ① [2.7점] · 문법

문장 주어 I가 실제로 volunteer trip을 조직했다는 과거 서술이므로 organized가 필요하다. organizing은 이 자리에 서술동사로 올 수 없다.

3. ⑤ [2.5점]

feeder는 호기심과 탐색 행동을 유발하고 야생에서처럼 활동하도록 돕기 때문에 enrichment에 해당한다.

4. ② [2.6점]

원문은 자연적 본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enrichment를 실시했다고 하므로 이미 완전히 회복했다는 추론은 불가능하다.

5. ④ [2.8점]

발을 들어 올린 직후 좋아하는 수박을 보상으로 제공해 desirable behavior를 강화한다.

6. ② [3.0점] · 문법

After 뒤의 spending이 전치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, 주어 training의 서술동사는 involves, situations는 통제되는 상황이므로 controlled가 맞다.

7. ⑤ [2.7점]

원문은 Following the veterinarian's guidance라고 명시한다.

8. ③ [2.5점]

마지막 부분에서 개별 동물 돌봄을 넘어 기후·인간 활동·공존과 책임으로 시야가 확장된다.

9. ① [3.1점]

제한 수량·시간 압박이 의도하지 않은 구매로 밀어 넣는 익숙한 경험을 예로 들어 dark pattern을 설명한다.

10. ④ [2.7점] · 문법

주어가 복수인 manipulative designs이므로 관계절의 동사는 trick이 되어야 한다. tricks는 수일치 오류다.

11. ⑤ [3.0점]

두 유형 모두 사용자의 원래 의도와 다른 결정을 유도하지만, hidden fees는 비용 노출 시점, confirm-shaming은 심리적 표현 방식에 초점이 있다.

12. ② [3.2점] · 문법

be aware of, manipulate A into V-ing, be presented의 수동 구조가 각각 필요하다.

13. ④ [2.5점]

회사 측은 새로운 마케팅이라고 주장하지만 critics는 양측 가치와 긍정적 관계를 기준으로 진짜 마케팅을 구분한다.

14. ① [2.7점] · 문법

are becoming이 맞는 진행형이므로 become은 부적절하다. 나머지는 각각 현재완료, 복수주어 수일치가 맞다.

15. ③ [3.1점]

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개인의 주의와 책임으로 논지를 확장한다.

16. ④ [3.0점]

성장 배경·피해·연구·규제·개인적 인식과 주의가 모두 결합된 요약이다.

17. ① [2.9점]

화자는 수십만 명과 하나의 심장·동맥으로 연결된 듯 느끼며 개인적 공포가 사라지는 집단적 양심의 순간을 경험한다.

18. ⑤ [2.7점] · 문법

people은 복수 주어이므로 crumple이 필요하다. crumples는 수일치 오류다.

19. ③ [2.8점]

국가 연주 중 발포가 시작되며 “single heart”의 승고한 감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화자는 도주한다.

20. ② [3.1점]

원문은 집단의 sterner stuff와 화자의 도덕적 주저를 직접 대비한다.

21. ① [2.8점]

피 묻은 의료진·부서진 거리와 동시에 헌혈 행렬, 음식과 물을 건네는 장면이 공동체적 돌봄을 보여 준다.

22. ④ [2.6점]

남자가 트럭을 가지러 가고(C), 화자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(D). 이후 병영의 총이 사라졌음을 확인(B)하고 다음 날 병원 앞 헌혈 행렬(A)을 본다.

23. ② [2.6점]

본문은 군중이 개인 수준을 넘어 용기·이타주의 또는 야만성을 증폭할 수 있다고 본다.

24. ⑤ [2.5점]

검열은 답을 지우지만 질문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성에 대한 미해결 문제를 더 선명하게 남긴다.

25. ③ [2.7점]

군중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을 수준의 용기·이타주의도, 반대로 야만성도 증폭될 수 있다고 본다.

26. ⑤ [2.5점]

초기에는 plague가 휩쓴 듯 비어 있고 군홧발·끌려가는 소리가 나며, 이후 기관·상점은 재개되지만 계엄과 검문은 계속된다.

27. ① [2.4점] · 문법

be close to, it took time to V, 관계절 뒤 주어 anyone은 단수이므로 was가 맞다.

28. ④ [2.7점]

시신이 있던 장소의 분수가 다시 돌아가는 외형적 정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과 현실의 불일치를 문제 삼는 행동이다.

29. ② [2.4점]

지휘관이 폭력을 요구한 구조적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병사의 다른 선택을 함께 보여 준다.

30. ③ [3.1점] · 문법

some soldiers가 복수이므로 were, 관계절의 서술동사는 carried, 명령은 “주어진” 것이므로 was given이 맞다.

31. ④ [2.8점]

극단적 폭력 속에서도 얼굴·목소리·존엄을 기억하고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인간성을 지키는 행위로 제시된다.

32. ⑤ [2.7점]

본문은 movement repertoire를 학습·소통·창의성·정서적 성숙과 직접 연결한다.

33. ② [2.6점]

design은 인간이 본래 움직이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생물학적·기능적 설계를 가리킨다.

34. ① [3.1점]

Educational services는 9%에서 18%로 9%p 증가했으므로 14%p 증가는 틀리다.

35. ④ [3.1점]

A 39-11=28, B 18=2×9, C 15→14는 1%p 감소, D 2→5는 3%p 증가, E 39-18=21이므로 모두 맞다.

36. ③ [3.3점]

국가 제한은 없고 고등학생이며, 주제는 Ocean Protection, 웹사이트 업로드, 마감 전 제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.